

## 〈독해〉

5회 9.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무 구멍에 둥지를 만드는 새는 이 구멍에 둥지를 만드는 다른 새나 나무에 구멍을 뚫은 딱따구리와 관계를 맺는다. 각 생물은 자기 서식지의 다른 생물들과 실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대부분의 관계는 상호작용이다. 포식자는 피식자에게 영향을 주고 피식자 또한 포식자에게 영향을 준다. 포식자는 피식자를 잡아먹지만 만일 피식자가 모두 없어진다면 포식자 자신도 위기에 처한다.

생물과 환경 사이의 관계 및 생물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방법은 생태 지위를 써서 이를 나타낸다. 생물에게 서식지는 사람으로 치면 그의 주소에 해당하며 생물에게 생태 지위는 그의 직업에 해당한다. 한 생물의 생태 지위란 그 생물의 생존에 관여하는 모든 관계를 종합한 것이다. 생물의 생태 지위는 매우 높은 차원의 공간에서 하나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 차원에서 볼 때 각 동물을 자신이 잡아먹는 동물의 크기순으로 나열할 수 있는데 이런 나열의 한 지점에 그 동물의 생태 지위가 놓인다. 다른 한 차원에서 볼 때 각 동물을 서식지의 평균 온도 순으로 나열할 수 있고 이런 나열의 한 지점에 그 동물의 생태 지위가 놓인다. 이런 식으로 매우 많은 차원을 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동물들을 나열할 수 있다. 가능한 모든 차원을 고려하여 한 생물의 생태 지위를 결정하면 이로써 이 생물이 다른 생물과 맺는 관계 및 환경과 맺는 관계를 또렷이 기술할 수 있다.

최근 생태학자들은 생태 지위에 매우 크게 관심을 둔다. 그 까닭은 생태 지위의 관점에서 종의 생존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태학자가 일단 생태 지위를 표시하는 차원들을 완전히 결정하면 한 생태 지위에 오직 한 종류의 생물밖에 살 수 없다. 생태학자는 이렇게 되도록 생태 지위를 표시하는 차원들을 완전히 결정한다. 이 때문에 만일 한 생태 지위가 공석이고 이 지위를 놓고 두 종의 생물이 경쟁한다면 한 종은 다른 종을 도태시킨다. 다시 말해 만일 두 생물종이 모든 측면 곧 모든 차원에서 똑같은 자원을 놓고 경쟁한다면 긴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한 종이 다른 종을 내쫓아 버린다. 이런 원칙을 “경쟁·배타의 법칙”이라 한다. 여기서 경쟁은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두 종의 두꺼비가 봄에 잠깐 생겨난 작은 연못에 알을 낳으려 한다. 한쪽 두꺼비가 다른 쪽 두꺼비보다 먼저 이 연못에 이르러 알을 낳았다면 나중에 온 종은 알을 낳을 곳이 없고 결국 알을 낳지 못해 도태할 것이다. 이런 일도 경쟁의 일종이다.

- ① 생태 지위를 결정하는 차원들은 종마다 다르다.
- ② 한 생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기껏해야 한 종이다.
- ③ 서로 다른 생태 지위에 있는 두 생물 종은 서로 경쟁한다.
- ④ 한 종의 생태 지위는 그 종과 다른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결정된다.
- ⑤ 같은 자원을 놓고 두 종이 아주 오랫동안 경쟁한다면, 두 종은 모두 도태되거나 둘은 한 생태 지위를 공유할 것이다

5회 10. 다음 글에서 ㉠에 관하여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삶의 의미에 관한 이론은 삶을 훌륭하게 만드는 일반적 특징들을 이해하려는 목표를 갖는다. 이 이론은 객관적 자연주의, 주관적 자연주의, 혼합적 자연주의, 초자연주의라는 ㉠ 네 가지로 나뉜다.

우선, 객관적 자연주의는 삶의 의미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원천들과 적절히 연결되는 데서 비롯하며 그런 원천이 지닌 가치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든 상관없이 별개로 존재한다고 본다. 이 관점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가 유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착각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깨어 있는 시간 내내 좋아하는 시트콤을 시청하면서 자기 삶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하지만 이 관점에 따르면 그 일이 아무리 즐거워도 그런 삶은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삶의 의미를 쌓기 위해 굳이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길 필요도 없다.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원천과 적절히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는 유의미한 삶을 산 것이다. 하지만 그런 원천이 초자연적인 존재들은 아니다.

객관적 자연주의처럼 주관적 자연주의도 초자연적 존재에서 비롯된 삶의 의미 같은 것이 없는 세계에서도 유의미한 삶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관적 자연주의는 자신이 열렬히 원하는 것을 얻거나, 스스로 확립한 목표들을 달성하거나, 자신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을 성취한다는 측면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유의미한 삶이란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느끼며 그 삶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혼합적 자연주의는 위 두 자연주의를 이중 교배한 산물이다. 유의미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과 연결된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또 그런 활동 덕분에 만족을 느껴야 한다. 쓸데없는 계획과 헛일에 폭 빠져산다거나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유익한 계획과 일거리를 냉담하게 수행하는 것은 유의미한 삶이 될 수 없다. 만족스러운 게으름뱅이나 불만족스러운 자선가나 둘 다 유의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한쪽은 잘못된 행실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바른 행실을 하면서도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자연주의 이론들과 대조하여 초자연주의는 자연 세계 바깥에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기준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유의미한 삶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본다.

- ㉠ 어떤 이론도 만족스러운 게으름뱅이가 유의미한 삶을 산다고 여기지 않는다.
- ㉡ 불만으로 가득 찬 삶도 유의미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이론은 많아야 하나뿐이다.
- ㉢ 누구나 스스로 확립한 삶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유의미한 삶을 산다고 여기는 이론은 적어도 두 개다.
- ㉣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원천과 연결되고 이에 만족을 느끼는 삶도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이론은 적어도 두 개다.
- ㉤ 사람들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원천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이론은 적어도 두 개다.

**<원리적용>**

5회 11.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칭찬할 수 있으며 그럴 때 판단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우선, 그 행위 자체가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 것인지만 고려하면 된다는 사람 A가 있을 수 있다. A에 따르면 단지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 행위이기만 하면 칭찬할 수 있고,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면 비난할 수 있다. 또는 그 행위 자체보다도 그 행위를 하게 된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람 B가 있을 수 있다. B에 따르면 어떤 행위든 그것이 나쁜 동기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비난할 수 있으며 설령 도덕 법칙에 어긋나는 행위라 해도 좋은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칭찬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 C에 따르면 도덕 법칙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좋은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라야 칭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관점도 있을 수 있다. 이를 다음 사례에 적용해 보자.

나무꾼 갑돌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연못에 도끼를 빠뜨리고 울고 있었다. 그때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산신령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들고 나타나 연못에 빠진 도끼가 이것들이냐고 물었다. 갑돌은 자신의 도끼는 쇠도끼라고 정직하게 대답했다. 산신령은 갑돌을 칭찬하며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선물로 주었다. 한편,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시샘이 난 이웃의 욕심쟁이 나무꾼 을돌이 같은 연못을 찾아가 갑돌의 흉내를 내면서 자신의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우는 척했다. 다시 산신령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들고 나타나 이것들을 잃어버렸냐고 묻자 을돌은 둘 다 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산신령은 크게 노하여 벌을 내렸다. 그러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마찬가지로 탐욕이 생긴 또 다른 욕심쟁이 나무꾼 병돌이 같은 연못을 찾아가 갑돌의 흉내를 내면서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우는 척했다. 이번에도 역시 산신령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들고 나타나 이것들을 잃어버렸냐고 묻자 그 욕심쟁이 나무꾼은 자기 것은 쇠도끼라고 정직하게 대답했다. 산신령이 병돌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보 기>**

- ㄱ. 산신령이 갑돌에게 해준 것과 똑같은 보상을 병돌에게 해주었든 안 해주었든, 산신령의 판단 기준은 A와 같을 수 없다.
- ㄴ. 만약 산신령이 갑돌에게 해준 것과 똑같은 보상을 병돌에게도 해주었다면, 산신령의 판단 기준은 B와 같을 수 없다.
- ㄷ. 만약 산신령이 을돌에게 내린 것과 똑같은 벌을 병돌에게 내렸다면, 산신령의 판단 기준은 C와 같을 수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회 17. 다음 <규정>을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정>

제1조 ① 유실물(가축을 포함한다)의 습득자는 유실물을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실물이 경찰서에 신고 및 제출된 경우 경찰서장은 유실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유실물이 신고 및 제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에 제출된 유실물은 경찰서장이 보관하여야 하나, 경찰서장은 제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적당한 자로 하여금 유실물을 보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를 제외한다.

제2조 ① 유실물 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득자가 유실물을 습득한 때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습득자 및 보관자는 소유자(제2조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포함하고 이를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유실물의 제출·교부 및 가치보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습득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사례>

2020. 1. 13. 갑은 자기 소유의 염소 A를 팔러 시장에 가던 중에 A가 달아나자 뒤쫓다가 놓쳤다. 2020. 1. 14. 을은 길에서 다리에 상처를 입은 A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 먹이를 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2020. 1. 23. 을은 경찰서에 A의 습득사실을 알리고 A를 제출하였다. 경찰서장은 2020. 1. 24. 지역신문에 A의 발견 및 보관 사실을 공고하였다.

- ① 경찰서장은 을에게 A를 보관하도록 명할 수 없다.
- ② 갑이 2020. 4. 14. 경찰서장에게 A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A를 데려올 수 있다.
- ③ 갑이 2020. 4. 14. 경찰서장에게 A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혔다면 A는 2020. 1. 14.부터 을의 소유가 된다.
- ④ 갑이 2020. 4. 30. 경찰서장에게 A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을은 갑에게 A의 상처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갑이 2020. 4. 14. 경찰서장에게 A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혔다면 경찰서장은 갑에게 A가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소비한 사료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회 18. 다음 글에 대한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X국과 Y국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의 선고를 받아 파산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X국: 개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파산하여 파산 당시에 가진 재산 모두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면 남은 빚은 전부 탕감받는다. 법원은 파산한 자가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돈을 갚지 않는 악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빚 탕감을 허가해준다. 파산하여 빚을 탕감받은 자는 국민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전혀 제한받지 않는다.

Y국: 개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파산하여 파산 당시에 가진 재산 모두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지만, 채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남은 빚을 탕감받지 못한다. 채권자는 자신이 빌려준 돈을 전부 받을 때까지 파산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제한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파산한 자는 일정 기간 구금되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선거권이 박탈되며 파산 사실이 외부에 공개된다.

- ① 채권자들이 파산한 채무자에 대하여 빚을 갚도록 독촉하고 관련 소송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사람은 X국 제도를 지지할 것이다.
- ② 개인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이성적 존재이므로 무절제한 소비행위를 한 자를 국가가 나서서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X국 제도를 반대할 것이다.
- ③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파산신청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은 Y국 제도를 지지할 것이다.
- ④ 파산위기에 처한 자가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하여 또 다른 빚을 지는 등 계속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할 것을 우려하는 사람은 Y국 제도를 반대할 것이다.
- ⑤ 파산 후의 채권·채무관계를 채권자의 의사에 좌우될 수 있게 한 결과, 가공의 채권자가 등장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사람은 Y국 제도를 반대할 것이다.

2회 17. <이론>에 따라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론>

하나의 불법행위가 여러 나라와 관련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와 그 성립시 손해배상액과 같은 문제를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하여 규율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행동지와 결과발생지라는 개념을 토대로 정립할 수 있다. 행동지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구체적 활동을 실행한 곳을 말하고, 결과발생지란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과 같은 법률상 이익이 직접 침해된 곳을 말한다.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 결과발생지 법에 의한다는 견해, ㉡ 원칙적으로 결과발생지 법에 의하되, 가해자가 결과발생지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행동지 법에 의한다는 견해, ㉢ 행동지 법이나 결과발생지 법 중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에 의한다는 견해가 있다.

<사례>

갑은 X국에 거주하고, Y국의 영업소에서 모든 소득을 얻는다. 갑은 모든 소득을 Z국에 있는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예치하고, 그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Y국에서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한다. W국에 거주하는 부동산 개발업자 을은 W국의 영업소에서 갑을 속여 W국에 있는 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투자금 10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을이 자신의 재산을 침해하였음을 알게 된 갑은 W국 법원에서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X국법, Y국법, Z국법, W국법에 따라 갑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각각 11억 원, 13억 원, 14억 원, 12억 원이다.

—<보 기>—

- ㉠. 재산이라는 법률상 이익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직접 침해된다고 본다면, ㉡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에 따른 손해배상액보다 크거나 같다.
- ㉡. 재산이라는 법률상 이익은 피해자가 주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곳에서 직접 침해된다고 본다면, 을이 갑의 경제활동 중심지를 알고 있었던 경우 ㉠, ㉡, ㉢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모두 같다.
- ㉢. 재산이라는 법률상 이익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금전을 송금하기 전에 그 금전이 예치되어 있던 계좌가 개설된 곳에서 직접 침해된다고 본다면, 을이 갑의 계좌 소재지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에 따른 손해배상액보다 크다.

-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2회 18. <규정>에 따라 X국 감독당국에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은 X국 회사가 외국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 회사가 외국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다음 <규정>에 따라 X국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규정>

제1조 X국 회사가 외국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X국 감독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권이 X국 거주자가 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 외국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외국 회사가 X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X국 거주자의 주식보유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제1조를 준용한다.

제3조 제2조의 외국 회사가 외국에서 외국 통화로 표시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증권이 X국 거주자가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제1조의 신고의무가 없다.

<보 기>

- ㄱ. X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Y국 회사(X국 거주자의 주식보유비율 10%)가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X국 거주자가 취득할 수 없다’는 조건이 포함된 증권(X국 통화로 표시)을 Y국에서 발행하는 경우
- ㄴ. Y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Z국 회사(X국 거주자의 주식보유비율 15%)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X국 거주자가 취득할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된 증권(X국 통화로 표시)을 Y국에서 발행하는 경우
- ㄷ. Y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Z국 회사(X국 거주자의 주식보유비율 20%)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X국 거주자가 취득할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된 증권(Z국 통화로 표시)을 Y국에서 발행하는 경우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3회 17. <규정>에 따라 <사례>의 병이 받을 형벌은?

<규정>

(1) 형벌 중 중형에는 다음 여섯 등급이 있다.

1등급	사형
2등급	노역 5년 후 3천 리 밖으로 유배
3등급	3천 리 밖으로 유배
4등급	2천 리 밖으로 유배
5등급	노역 3년 6개월
6등급	노역 3년

- (2) 사람을 때려 재물을 빼앗은 자는 3천 리 밖으로 유배한다.
- (3)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도운 자는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한 등급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 (4) 자신을 체포하려는 포졸을 때려 상해를 입힌 자의 형벌은 네 등급을 가중한다.
- (5) 탈옥한 자의 형벌은 세 등급을 가중한다.
- (6) 자수한 자의 형벌은 세 등급을 감경한다.
- (7) 1~3등급에서 형을 감경하는 경우 3등급, 4등급은 하나의 등급으로 취급한다. 가령 2등급에서 두 등급을 감경하면 5등급이다.
- (8) 3~6등급에서 형을 가중하는 경우 2등급이 상한이다.
- (9) (3)~(6)의 형벌 가중·감경 사유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사유 모두를 (3), (4), (5), (6)의 순서대로 적용한다.

<사례>

갑이 을을 때려 재물을 빼앗는 동안 병은 갑을 위하여 망을 보아주었다. 도망쳐 숨어 지내던 병은 포졸 정의 눈에 띄어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그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이후 병은 관아에 자수하고 갇혀 있던 중 탈옥하였다.

- ① 노역 5년 후 3천 리 밖으로 유배
- ② 3천 리 밖으로 유배
- ③ 2천 리 밖으로 유배
- ④ 노역 3년 6개월
- ⑤ 노역 3년



3회 18.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은 소셜 네트워크상 명예훼손, 혐오표현 등이 포함된 위법 콘텐츠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제1조 ① 이 법은 등록기준지가 국내인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국내 사업자’)에 적용된다. 다만 등록기준지가 국외인 사업자(‘국외 사업자’)로서 국내 등록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적용 대상 중 국내 등록이용자 수가 150만 명 이하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 사업자는 제2조제2항의 의무를 면한다.

③ 제1항의 적용 대상 중 국내 등록이용자 수가 200만 명 이하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 사업자 및 국외 사업자는 제2조제3항의 의무를 면한다.

제2조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위법 콘텐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플랫폼에 알기 쉽고 투명한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위 신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위법 콘텐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신고자 및 콘텐츠 제공자에게 위 심사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국외 사업자는 국내에 송달대리인을 임명하고 플랫폼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제4조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최대 50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위반에만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는 5억 원 이하로 한다.

—<보 기>—

ㄱ. X국 내 등록이용자 수가 120만 명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 사업자가 위법 콘텐츠 신고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X국 내 송달대리인의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5억 원을 한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ㄴ. X국 내 등록이용자 수가 150만 명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 사업자가 위법 콘텐츠 신고가 있었음에도 심사를 게을리 하고 심사 결과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ㄷ. X국 내 등록이용자 수가 180만 명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 사업자는 위법 콘텐츠 신고에 대한 심사 결과 위법 콘텐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해당 콘텐츠 제공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특허권’이란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에 대해 국가가 부여한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특허를 출원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사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특허를 출원만 하는 경우도 있다.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에 명시된 ‘특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허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새로움’이다. 특허법은 ‘새로움’을 ‘공간적’으로 지구 상 어느 나라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어야 하고, ‘시간적’으로 특허 출원일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어야 하고, ‘인적’으로 전 세계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허권 취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허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지식 재산권에 관한 국제 조약인 ‘파리 조약’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 출원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 ‘파리 조약’은 해당 나라에서 특허권 취득 요건을 판단할 때에 ‘우선일’을 요건 판단의 기준일로 하는 소급 혜택을 준다. 이때 ‘우선일’은 파리 조약 당사국 중에서 가장 앞선 특허 출원일을 의미하는데, 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나라에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파리 조약 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한 후, 6개월 뒤 파리 조약 가입국인 A국에 특허 출원을 했을 때, A국에서 특허 취득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을 우리나라에서의 특허 출원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이 방법에 의한 외국 특허 출원은 절차가 간단하고, 좀 더 신속하게 권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출원하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권 취득 비용을 초기에 모두 집행해야 하며, 각국의 언어로 각국 특허청 방식에 따라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우선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급 혜택을 누릴 수 없어서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파리 조약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조약이 ㉡ 특허 협력 조약(PCT)이다. 이를 통한 방법의 핵심은 동일한 특허 출원을 여러 나라에 할 경우, 지정 관청에 하나의 양식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소급 혜택이 적용되는 기간도 12개월에서 30개월로 늘렸고, 특허성 유무에 관한 예비 심사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 그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일로부터 12개월이 되기 전에 PCT 국제 출원을 하고, 이때 전 세계의 PCT 가맹 국가 중에서 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나라를 지정한 다음,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되기 전에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를 받고, 그 이후 각 나라의 특허청에 다시 서류를 접수하여 심사를 받는다. PCT 국제 출원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나 처음부터 각 나라의 특허권 취득 비용을 모두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앞으로 여러 나라에서 특허권 취득을 진행할 경우가 예상될 경우 유리한 방법이다. 이미 2년 6개월이 지나 외국에서 특허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기업의 필요에 따라 특허 출원만 하는 경우가 있다. 해외 파트너 기업과의 계약 때문에 특허 출원이 필요한 기업이 있을 수 있고, 기업의 기술 보유 현황을 알리기 위해 특허 출원 번호만 필요한 기업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특허 출원은 가능하다.

4회 19. 위 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각 나라의 별도 절차 없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 ② ㉠과 ㉡은 모두 특허권 취득 요건의 판정 기준일을 우선일로 소급해 준다.
- ③ ㉠과 ㉡은 모두 특허권을 받는 데에 드는 비용을 초기에 모두 집행해야 한다.
- ④ ㉠은 ㉡과 달리 하나의 서류 양식만으로 여러 나라에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 ⑤ ㉡은 ㉠과 달리 취득 절차가 간단하여 특허권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

4회 20.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사례>를 판단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한국인 김○○ 씨는 ‘A’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2012년 7월 1일자로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했다. 그 후 김○○ 씨는 ‘A’ 아이디어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고, 반응이 좋아서 이듬해 6월 파리 조약 가입국이자 PCT 가맹국인 일본으로 수출하려고 특허 출원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한 일본인이 김○○ 씨의 ‘A’와 동일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2013년 1월 일본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일본에서 특허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한 김○○ 씨는 특허 출원을 포기하였다.

- ① 김○○씨가 2013년 6월에 파리 조약에 의한 방법으로 일본에 특허 출원을 했다면, 일본에서 특허권을 취득할 수도 있었겠군.
- ② 2013년 1월에 일본인이 출원한 ‘A’라는 아이디어는 우리나라 특허권의 시간적, 공간적 기준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겠군.
- ③ 2013년 7월 1일 이전에 김○○씨가 PCT 국제 출원을 활용하여 지정 관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특허성 유무에 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었겠군.
- ④ 김○○씨가 2015년 10월에 일본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해 특허 출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PCT 국제 출원의 소급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할 수 없겠군.
- ⑤ 김○○씨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특허 출원을 한 시점에 여러 나라에서 특허권을 취득할 생각이 있었다면 파리 조약보다는 PCT 국제 출원을 통한 방법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군.

4회 12. 다음 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은 규제를 위반할 경우  $g$ 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한 사회적 오염 피해액은  $d$ 만큼 발생한다고 하자. 그러나 정부가 단속을 하는 경우 기업의 규제 위반은 반드시 적발되어 벌금으로  $p$ 를 납부해야 한다.  $p$ 는 정부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기업의 행위를 단속할 경우 비용  $c$ 를 지불한다. 기업이 규제를 위반할 때 당국이 단속 행위를 하지 않으면 오염 피해만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정부는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아래의 표에서 각 칸의 첫째 값은 기업의 이익, 둘째 값은 정부의 이익을 뜻하며,  $g, d, p, c > 0$ 이다.

	정부	단속함	단속 안 함
기업			
위반함		$-p+g, p-d-c$	$g, -d$
위반 안 함		$0, -c$	$0, 0$

기업과 정부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의사 결정을 한다. 기업이 위반을 하면 정부는 단속을 하고, 정부가 단속을 하면 기업은 위반을 하지 않고, 기업이 위반하지 않으면 정부가 단속을 하지 않고, 정부가 단속을 하지 않으면 기업은 위반을 하게 되고, 기업이 위반을 하면 정부가 다시 단속을 하게 된다.

- ①  $p$ 가  $g$ 보다 클 경우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 ②  $p$ 가  $c$ 보다 클 경우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 ③  $p$ 가  $g$ 보다 크고,  $p$ 가  $c$ 보다 클 경우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은 지속적으로 변환한다.
- ④  $d$ 가  $c$ 보다 클 경우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은 균형점에 도달한다.
- 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단속을 하는 것이 최적 전략이 된다.

**<실험>**

3회 14. 다음 글의 <실험 결과>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어린이들이 쇼핑하는 횟수가 늘고 있고, 부모의 구매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제임스 맥닐의 보고에 의하면, 어린이들(4~12세)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소비에 어린이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 여러 요인들 중 한 가지는 변화된 양육 방식이라는 견해가 있다. 과거 권위적인 양육 방식에서는 거의 모든 구매 결정을 부모 자신들이 했다. 그러나 현대의 젊은 부모들은 민주적 양육 방식을 사용해 아이들이 구매를 결정하는 것을 ‘학습의 기회’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들의 시간 부족과 장시간의 근로 역시 이러한 경향성을 촉진시킨다는 견해도 있다.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녀들에게 물질적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연구자 K는 소비에 어린이들의 영향력이 커진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의 실험을 수행했다. 집단 1은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 중 장시간의 근로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는 부모로 구성했다. 집단 2의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 중 아이를 돌볼 시간이 많은 부모로 구성했다. 집단 3의 경우는 권위적이지만 아이를 돌볼 시간은 많은 부모로, 집단 4의 경우는 민주적이지만 아이를 돌볼 시간이 적은 부모로 구성했다. 마지막 집단 5의 경우는 무작위로 부모를 모집했다.

**<실험 결과>**

- 어린이 용품의 구매 액수는 집단 1과 집단 4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집단 2와 집단 3은 가장 낮은 편이었다.
- 어린이 용품의 구매 횟수는 집단 2와 집단 4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집단 1과 집단 3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 어린이 용품의 구매 결정의 주체는 집단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① 어린이 용품 구매 의사결정은 부모가 민주적인지 여부보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 ② 부모의 양육 태도는 어린이 용품 구매 액수에, 부모가 아이를 돌볼 시간은 어린이 용품 구매 횟수에 영향을 미친다.
- ③ 민주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고 양육 시간도 많은 부모의 경우 어린이 용품 구매 결정의 주체가 아이들이 되도록 한다.
- ④ 제임스 맥닐의 보고가 어린이들이 구매 결정의 주체로 역할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실험 결과는 그 요인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⑤ 다른 집단에 비해 민주적이고 양육 시간이 적은 부모의 아이들이 어린이 용품 구매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4회 13. 다음 글의 ㉠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어느 과학자가 간염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을 개발하였다. 이 약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60명의 간염 환자 중 40명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신약을 투여하고, 나머지 20명에게는 위약(placebo)을 투여하는 임상 실험을 하였다. 과학자가 수행한 ㉠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60명의 간염 환자 중 실험이 끝난 후 호전된 환자는 48명이었고 호전되지 않은 환자는 12명이었다.
- 신약을 투여한 집단 중 호전된 환자는 A명, 호전되지 않은 환자는 B명이었다.
- 위약을 투여한 집단 중 호전된 환자는 C명, 호전되지 않은 환자는 D명이었다.

— <보 기> —

- ㄱ. D가 클수록 신약을 투여 받은 사람 중 호전된 사람의 비율이 커진다.
- ㄴ. A와 C의 차이가 작을수록 신약을 투여 받은 사람 중 호전된 사람의 비율이 작아진다.
- ㄷ. A:B가 4:1이면 신약을 투여 받은 사람 중 호전된 사람의 비율이 위약을 투여 받은 사람 중 호전된 사람의 비율과 같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5회 15.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아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루에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을 50그램 이상 먹으면 대장암 발병률이 18% 높아진다’는 신문 기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기서 ‘18%’라는 값은 상대위험도에서 나온다. 즉, 매일 가공육 50그램을 먹는 집단이 그러지 않는 집단에 비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1.18배이고, 이 경우 상대위험도는 1.18이라고 표현한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의 위험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각 집단에서 대장암에 걸릴 사람의 수로 이 문제를 표현해보자. 일반적으로 100명의 사람 중 약 6명꼴로 대장암에 걸린다. 이 100명이 매일 가공육을 50그램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 18%가 말하는 것은, 그 수가 약 7명이 된다는 것이다. 6의 18%는 1이 살짝 넘기 때문이다. 즉 평생 가공육 50그램을 먹었으면 100명 중 대장암에 걸리는 사람이 1명 정도 더 생긴다는 것이다. 물론 당신이 이 1명이 된다면 불행한 일이지만, 100명 중에서 1명이 더 생기는 정도라면 그렇게 공포스러운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중의 관심을 끌려는 언론 매체는

상대위험도는 법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작업상 석면에 자주 노출된 수철이 폐암에 걸렸다면, 이 경우 석면이 폐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인과관계를 확신할 수 없다. 석면에 노출되지 않았다 해서 폐암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많은 나라의 법원은 노출 관련 상대위험도가 2 이상이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결한다. 그 바탕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1,000명 중 10명 정도가 폐암에 걸린다고 하자. 석면 노출이 폐암을 일으킬 상대위험도가 2.5라면, 이 1,000명이 석면에 노출될 경우 아마 25명 정도 폐암에 걸리게 될 것이다. 폐암에 걸린 집단 중에서 절반 이상은 석면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폐암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보 기>—

- ㄱ. 상대위험도를 실제 발생 비율과 함께 표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 ㄴ. 상대위험도만 표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 ㄷ. 수철은 석면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폐암에 걸리지 않았을 집단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 ㄹ. 수철은 상대적으로 폐암 위험에 대해 안전할 확률이 높다.
- ㅁ. 석면에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수철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A) (B)

- ① ㄱ ..... ㄷ
- ② ㄱ ..... ㄹ
- ③ ㄱ ..... ㅁ
- ④ ㄴ ..... ㄷ
- ⑤ ㄴ ..... ㅁ

5회 16. 다음 글을 토대로 ㉠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펜실베이니아주의 소도시 레딩은 과거 오랜 기간 쇠락의 길을 걸었고 2011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라는 오명을 썼다. 재정이 악화되자 시당국은 경찰 인력을 대폭 감축했다. 그러자 레딩의 경찰서장은 경찰 인력이 줄더라도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법으로 한 회사가 만든 범죄 예측 모형을 도입했다. 이 모형은 범죄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시간대별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하고, 그 결과 값을 컴퓨터상의 지도에 사각형 모양으로 표시했다. 사각형 하나는 축구장 두 개 넓이에 해당했다. 만약 사각형으로 표시한 지역들을 순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면 줄어든 인력으로도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예측 모형을 도입한 후 1년 만에 경찰은 ‘레딩시의 강도 사건 발생 건수가 23%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 경찰의 이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 범죄 예측 모형은 범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한다. 이를 개발한 회사는 이 모형이 피부색과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대신 범죄의 유형, 발생 장소, 발생 시점과 같은 데이터에 집중한다고 자랑한다. 이는 언뜻 보면 아주 공정한 것처럼 생각된다. 경찰들이 범죄 발생 위험 지역들에 출동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 지역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대부분 강도와 차량 절도 같은 중대 범죄가 아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모형을 적용할 때 경찰에는 두 선택지가 있었다. 첫째는 이른바 1군 범죄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이다. 1군 범죄란 살인, 강도, 폭행과 같은 강력 범죄다. 둘째 선택지는 1군 범죄에다가 부랑, 구걸, 고성방가 등의 2군 범죄까지 포함하여 치안 관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선택지를 택하든 결과는 동일하다.

경미한 범죄는 대개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지 않는다면 범죄로 기록되지 않는다. 가난한 동네에서 경미한 범죄는 흔한 일이다. 이를 예측 모형에 입력하면 더 많은 경찰이 가난한 동네로 출동하게 되고, 당연히 그런 동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체포될 것이다. 경찰들이 강도나 살인 같은 중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을 도는 것일지라도, 우범 지대로 분류된 동네에서는 순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눈앞에서 벌어진다면 경찰이 어떻게 모른 척하겠는가. 그러다 보면 이런 경범죄가 범죄 예측 모형에서 점점 더 많은 점을 차지하고, 이는 다시 경찰이 그 지역을 순찰하게 만든다. 결국 범죄 예측 모형의 도입이 성공했다는 경찰의 판단은 선부른 것이다.

- ① 강도를 1군 범죄로 분류함으로써 강도 사건의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인 것이다.
- ② 경범죄 사건의 수가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전체 범죄 중에서 강도 사건의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 ③ 우범 지대의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경범죄 발생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강도 사건의 수도 줄어든 것이다.
- ④ 피부색이나 민족에 대한 편향성을 모형에서 배제하지 못해서 실제 강도 사건을 경범죄로 분류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 ⑤ 순찰을 소홀히 한 지역에서 일어난 강도 중에서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져서 강도 사건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 것이다.

5회 17. 다음 논증을 아래 <실험>의 결과로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분 하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그은 다음, 왼쪽 끝에 숫자 ‘만’이 있고 오른쪽 끝에는 숫자 ‘억’이 있다고 하자. 이 선분 위에 숫자 ‘백만’을 놓으라고 하면 어디에 두겠는가? 이 요청에 ‘백만’을 ‘억’보다 ‘만’에 가깝게 두는 사람들이 있고, 선분 중간에 두는 사람들도 있다. 전자의 경우, 사람들은 더하기 관점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만에 얼마를 더해야 백만이 되는지, 그리고 백만에 얼마를 더해야 억이 되는지를 비교해보면 ‘백만’이 ‘억’보다는 ‘만’에 훨씬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사람들이 곱하기 관점에서 생각한 결과다. 만의 100배가 백만이고, 백만의 100배가 억이기 때문에, 숫자 ‘백만’은 선분의 딱 중간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이는 문명에 상관없이 발견되는 현상이며, 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현상을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다른 종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실험 >—

여러 실험군의 쥐를 두 개의 지렛대가 있는 우리 안에 두고 여러 신호음을 규칙적으로 들려줬다. 어떤 때는 두 번, 어떤 때는 여덟 번. 신호음이 두 번 울릴 때 쥐가 첫째 지렛대를 누르면 쥐에게 먹이가 주어지고, 신호음이 여덟 번 울릴 때는 둘째 지렛대를 눌러야 먹이가 주어지도록 했다. 어느 정도 학습 시간을 거친 후 쥐들은 원칙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지렛대를 작동하게 되었다. 이 쥐들에게 신호음을 두 번이나 여덟 번이 아닌 다른 횟수로 들려주고, 쥐의 움직임을 관찰하였다

- ① 신호음이 세 번 울릴 때 쥐가 첫째 지렛대를 누른다면, 논증은 약화된다.
- ② 신호음이 세 번 울릴 때 쥐가 어느 쪽을 누를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논증은 강화된다.
- ③ 신호음이 네 번 울릴 때 둘째 지렛대를 누른다면, 논증은 강화된다.
- ④ 신호음이 네 번 울릴 때 쥐가 어느 쪽을 누를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논증은 강화된다.
- ⑤ 신호음이 다섯 번 울릴 때 쥐가 어느 쪽을 누를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논증은 강화된다.



## 〈논증〉

2회 11. 다음 글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추가해야 할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사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다. 그 동안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가 인간생명의 불가침성에 반하고 오관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하자고 주장해왔다. 반면, 사형 존치론자들은 사형을 대체하는 그 어떤 형벌도 사형과 대등한 범죄예방의 효과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형제도는 범죄를 억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형제도의 존속을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법의식과 법감정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지지하는 쪽으로 서서히 변화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남은 일은 우리나라의 법질서에서 사형관련 법규정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사형제 폐지를 입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 ① 법제도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서 변화되어야 한다.
- ② 사형제도는 형벌의 목적에 반하고 범죄억제효과가 없다.
- ③ 법제도는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식에 기초해야 한다.
- ④ 오관에 의하여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될 경우 그 인명을 되살릴 수 없다.
- 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은 사형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 ~ 문 20]

몇 가지 특별한 믿음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확실하게 믿는 경우는 드물다. 바로 눈앞에 있는 종이가 파란색으로 보인다고 해도 우리는 그 종이가 파란색임을 확실하게 믿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의 시력이 잘못 되어 사실은 초록색인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앞에 있는 종이가 파란색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는 않지만 높은 정도로 믿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믿음의 정도를 흔히 ‘신념도’라고 부른다.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신념도를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가령 어떤 사람이 내일 비가 온다는 것에 대해 0.8의 신념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내기의 예시를 통해 규정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내일 비가 온다는 것에 대해 0.8의 신념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일 비가 오면 200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800원을 잃는 내기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어떤 사람이 내일 철수가 우리 집에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가령 0.4의 신념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일 철수가 우리 집에 오지 않으면 600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400원을 잃는 내기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몇몇 이론가들은 우리의 신념도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확률 규칙을 만족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령 내일 비가 온다는 것에 대해 0.8의 신념도를 가지고 있다면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0.2의 신념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 신념도가 확률 규칙에 어긋나면 안 되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확률 규칙에 어긋나는 신념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갑이 확률 규칙에 어긋나는 신념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자. 우선 갑은 내일 비가 온다는 것에 대해 0.8의 신념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갑은 내일 비가 오면 200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800원을 잃는 내기를 공정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를 ‘내기 1’이라고 하자. 또한 갑은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0.4의 신념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갑은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600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400원을 잃는 내기를 공정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를 ‘내기 2’라고 하자. 이제 갑은 충분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 내기 1과 내기 2에 모두 참여한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내일 비가 오는 경우 갑은 내기 1에서 200원을 받고 내기 2에서는 400원을 잃는다. 내일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 갑이 얻게 될 손익결과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갑이 내기 1과 내기 2에 모두 참여한다면  결국 이와 같은 불합리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신념도는 확률 규칙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3회 19. 위 글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은 내일 비가 올 때만 200원을 잃는다.
- ② 갑은 내일 비가 오지 않을 때만 200원을 얻는다.
- ③ 갑은 내일 날씨에 상관없이 항상 200원을 잃는다.
- ④ 갑이 내일 비가 오는 경우에 얻게 될 손익결과는 내일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 얻게 될 손익결과보다 항상 크다.
- ⑤ 갑이 내일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 얻게 될 손익결과는 내일 비가 오는 경우에 얻게 될 손익결과보다 항상 크다.

3회 20.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ㄱ. 내일 비가 온다는 것에 대해 0.8의 신념도를 가지고 있고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0.4의 신념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확률 규칙에 어긋난 신념도를 가진 사람이다.

ㄴ. 확률 규칙에 어긋나는 신념도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0.4의 신념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600원을 받고 비가 오면 400원을 잃는 내기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ㄷ. 확률 규칙에 어긋나는 신념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내일 비가 온다는 것에 대해 0.8의 신념도를 가질 경우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0.2의 신념도를 가질 것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4회 17. 다음 글의 갑 ~ 병의 견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우리는 ‘불을 뿜는 용이 내 차고에 살고 있다.’라는 주장을 일상에서 들었을 때 그것을 거짓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용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차고에 가서 용이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면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혔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용이 투명한 용이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처럼 특정 주장을 반증할 방법이 없을 때 그 주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다.

갑: 반증 불가능한 주장이나 가설은 거짓인 주장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을 뿜는 용이 내 차고에 살고 있다.’나 ‘외계인이 존재한다.’ 등과 같은 진술은 거짓이다.

을: 반증 불가능한 주장이나 가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거짓인 주장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반증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떠한 주장을 참이나 거짓으로 판단하기 위해 먼저 성립해야 하는 조건이다. 그러므로 반증이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진술은 참도 거짓도 아니다.

병: 반증 불가능한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 참일 가능성이 낮은 진술이다. 반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어떤 진술을 거짓이라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미래의 반증, 혹은 입증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보 기>—

- ㄱ. 갑과 을은 ‘A가 반증 가능한 진술이라면 A는 거짓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ㄴ. 을과 병은 ‘A가 반증 불가능하다면, A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진술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ㄷ. 거짓인 진술과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진술이 양립불가하다면, 병은 ‘신은 존재한다’가 거짓인지 여부에 대한 갑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회 12.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낱말 “원자”는 두 가지 뜻을 갖는다. 하나는 원자주의가 가정하는 원자다. 원자주의는 물질은 오직 원자로만 이뤄졌다는 견해인데 여기서 원자는 더 작게 자를 수 없는 알갱이다. 이런 뜻의 “원자”를 “원자<sub>1</sub>”이라 부르겠다. 다른 하나는 원자이론이 가정하는 원자다. 원자이론에서 원자는 물질이며 더 작은 물질인 전자와 원자핵으로 잘라진다. 이를 뜻하는 “원자”를 “원자<sub>2</sub>”라 부르겠다.

—<보 기>—

- ㄱ. 원자이론과 원자주의가 모두 참이면, 모든 전자는 원자<sub>1</sub>로 이뤄졌다.  
 ㄴ. 어느 원자<sub>1</sub>도 원자<sub>2</sub>가 아니며, 원자이론과 원자주의가 모두 참일 수는 없다.  
 ㄷ. 원자<sub>2</sub> 말고 다른 알갱이도 물질세계를 이루는 데 참여한다면, 원자주의는 참이거나 원자이론은 거짓이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5회 18. 다음 갑과 을이 모두 동의할 주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 체중이 40kg인 사람이 80kg 수화물을 갖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경우 수화물이 기준 무게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돈을 더 내야 하는 게 현재 통용되는 관례지. 반면 체중 100kg인 사람이 20kg 가방을 들고 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것은 잘못된 거야. 비행기가 감당해야 할 무게에서 두 경우는 아무 차이가 없어. 비행기가 무거울수록 더 많은 연료를 써야 하는데, 초과 연료비에 대한 비용을 탑승객들이 공평하게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지. 당연히 체중에 비례해서 항공료를 책정해야 해.

을: 비행기에 실을 가방의 무게는 줄일 수 있지만, 체중은 그렇게 쉽게 줄일 수가 없잖아. 둘을 똑같이 다룰 수는 없지. 현재 통용되는 관례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갑: 그렇다면 체중과 수화물을 합한 무게의 초과분에 따라 항공료를 책정하면 되지. 네 말대로 체중을 당장 줄일 수 없지만 수화물의 무게는 원하면 줄일 수 있으니까.

을: 하지만 여전히 체중에는 고려해야 할 다른 측면이 있어. 비만해지고 싶어서 비만인 사람은 없다는 거야. 어찌할 수 없는 개인의 특성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야말로 차별이 아닐까?

갑: 피부색에 따라서 항공료에 차등을 주자고 말한다면 차별이겠지. 탑승객의 피부색 때문에 더 많은 연료를 써야 하는 건 아니니까.

을: 체중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낸다고 해서 더 나은 항공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아니잖아. 마른 사람이든 비만인 사람이든 같은 크기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비만인 사람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오히려 고통에 시달려야 하지.

—<보 기>—

- ㄱ. 항공료를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더 넓은 크기의 의자에 앉아야 한다.
- ㄴ. 체중이 동일한 경우 기준을 초과한 수화물의 무게에 따라 항공료를 물려야 한다.
- ㄷ. 체중과 수화물 무게의 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비용을 내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